

“쇼핑도 여행도 함께”...어디든 같이 가는 펫팸족 뜬다



펫코노이 시대

(2)가족이 된 반려동물

지난해 5월 기준 광주 반려동물 양육 13만5천749가구 최근 5년새 증가세...市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계획 백화점·아울렛 등 제한적 입장 허용...식당·카페도 동참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팸(Pet+Family)족의 증가로 반려동물과의 일상이 한층 더 다양해졌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와 디저트를 즐기고, 쇼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곳곳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3만5천749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는 2019년 4만4천322마리, 2020년 5만239마리, 2021년 6만4천251마리, 2022년 6만8천703마리, 2023년 7만9천748마리로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반려동물 증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광주시는 올해 초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반려동물복지팀을 신설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광주역시민속박물관 반려동물 특별 관람시간을 운영하고 개별 이동장과 전용 유모차를 이용해 동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 잔디밭에서는 아트피크닉을 열고 행동교정, 산책교육, 어질리티, 놀이 체험부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펼쳤다.

광산구 송산근린공원, 황룡진수공원을 비롯해 도심 곳곳의 공원에서는 입마개-리드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등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킨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과 가벼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도심 외곽에 자리한 광산구 대산동, 양동, 북구 망월동 등에는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애견카페들이 마련돼 있다. 이들 카페는 대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며, 넓은 공간을 활

●광주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 (단위:마리)



●광주 반려동물 양육비율 (기준:2023년 5월, 13만5천749가구)

21%

●광주·전남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 (기준:2024년 11월)

- ☕ 카페 845곳
- 🍴 식당 556곳
- 🏠 숙소 100곳
- 🏕 캠프장 14곳

/자료=행정안전부, 네이버 ‘갈수있어 강아지도’ /그래픽=최효은 기자

용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광산구 한 애견카페 관계자는 “주말에 손님이 가장 많을 때는 1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올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20명, 약 40~50여 마리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곳곳에 유사한 애견카페들이 생기면서 경쟁 또한 심해졌다”고 전했다.

지역 유통업계도 펫팸족을 겨냥해 반려동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020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지역 롯데아울렛(월드컵·수완점)도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켄넬(Kennel)이나 이동백 등에 넣어 동행할 수 있는 소형견이어야 하고 일부 매장은 입장이 제한되긴 하지만, 펫 전용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등 반려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이 지난해 도입한 펫 전용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60% 상승했다.

지역 호텔도 펫 전용 객실 패키지를 선보였다.

여수 유담마리나 호텔&리조트는 2020년 11월부터 반려견 동반 투숙이 가능한 펫 전용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객실의 평균 점유율은 2021년 40.2%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45%, 2023년

56%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이 늘어나고, 펫 동반 숙소와 캠핑장은 반려동물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펫팸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3월 오픈한 ‘갈수있어 강아지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는 카페 845곳, 식당 556곳, 숙소 100곳, 캠핑장 14곳에 달한다.

지역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반려동물과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문영 호남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최근 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야외 풀장의 일부를 애견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레저, 캠핑장, 숙소 등의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단순히 산책과 쇼핑을 즐기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스파나 놀이공원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승윤 기자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지역사회에 온기 나눴다

천원밤상 ‘해뜨는 식당’·사회복지시설 등 백미 400포대 후원

광주은행은 26일 “최근 창립 56주년을 맞아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밤상 ‘해뜨는 식당’에 백미 100포대,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16곳에 백미 300포대, 총 400포대를 후원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전달식은 대표로 광주 대인시장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서

병일 광주은행장과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뜨는 식당’은 2010년 개업한 이후로 14년째 가격 인상 없이 단돈 천원에 백반을 판매해오고 있는 식당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사장님의 선한 마



음이 지역사회에 전달돼 현재는 나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공동체의 상징적인 장소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광주은행은 이번 후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으며, 후원된 백미는 ‘해뜨는 식당’ 외에도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돼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SG 리딩뱅크’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지역사회 환원 ▲지역인재 양성 ▲문화·예술·스포츠 후원 ▲기업가치 제고 등 핵심가치 확립을 통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반자로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지역 밀착 상생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주택건설 광주전남도회, 사랑의 연탄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4만5천장 기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2024년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갖고 지역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4만5천장을 박재홍 지사에게 기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015년부터 회원사와 함께 하는 연탄나눔 후원을 통해 올해까지 총 17만9천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이날 기증된 연탄은 고운주택(주), 흥건건설(주), (주)영무건설, 대성건설(주), (주)광신종합건설, (주)모아종합건설, 모아건설산업(주), 골드클래스(주), (주)리제, (주)리젠시빌주택, (주)대광건설, 국제건설산업(주), 승원종합건설(주), 대리주택건설(주), (주)우미개발, 우미건설(주), 우현건



설(주), 고운건설(주), (주)삼호도시개발, (주)문장건설, (주)태호, 엠에스글로벌(주) 등 22개 회원사가 후원에 동참했다.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얼어붙은 경제상황과 주택건설시장의 침체 가운데 오호러 연탄후원에 동참한 회원사는 더 늘어나 사랑의 연탄을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채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 뽀뽀,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몹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11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11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워진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매일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산구 문의 : 062)650-2099